

‘三毒’에 빠져있는 현대사회 향한 경종

불교로 읽는 古典

에리히 프롬 <소유냐 존재냐>



박찬국
서울대 철학과 교수

에리히 프롬은 <자유로부터의 도피>, <사랑의 기술>, <소유냐 존재냐>와 같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로 문명(文明)을 뚫었던 철학자다. 20세기의 유명한 철학자들 중에서 프롬만큼 대중적으로 널리 읽혔던 사상가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누구든 에리히 프롬이란 사상가의 이름 정도는 들어보았을 것이라고 여겨지지만, 정작 에리히 프롬이 불교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졌을 뿐 아니라 불교의 명상법을 직접 수행하기도 했다는 사실은 그다지 알려지지 않았다.

쇼펜하우어와 같은 사상가를 제외하고는 서양의 철학자들 대부분이 불교를 비롯한 동양의 사상을 경시하거나 그것에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불교에 대한 프롬의 관심과 애정 그리고 높은 평가는 서양철학의 역사에서 극히 예외적인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에리히 프롬과 불교

프롬은 종교를 권위주의적인 종교와 인본주의적 종교로 나누면서 인본주의적 종교의 가장 훌륭한 전형으로 불교를 뽑았다. 권위주의적 종교는 특정한 교리나 예식체계 등을 종교의 핵심으로 보면서 신자들에게 특정한 교리를 맹목적으로 믿거나 특정한 예식체계를 무조건적으로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종교다. 권위주의적 종교를 믿으면 믿음수록 사람들은 비판적인 사고능력을 상실하게 될 뿐 아니라 자신들의 교리나 예식체계를 절대적인 진리라고 생각하는 독선에 사로잡히면서 다른 종교들을 이단시하고 배척하게 된다.

이에 반해 인본주의적 종교는 종교의 핵심을 이성과 사랑과 같이 인간에게 원래 존재하는 훌륭한 잠재능력을 온전히 개회시키는 데서 찾고 있다. 따라서 인본주의적 종교의 이념에 충실할수록 사람들은 비판적인 사고능력을 비롯한 지혜를 더욱 성숙 시키게 되며 모든 생명과 사물에 대해서 공감과 애정을 갖게 된다.

프롬은 불교를 인류 역사상 나타난 모든 종교들 중에서 가장 우상파괴적인 종교일 뿐 아니라 철저하게 인본주의적 종교라고 보았다. 불교는 한편으로 자신의 교리나 예

식체계를 무조건적으로 믿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위한 방법으로 생각하면서 그것들이 만약에 깨달음을 방해한다면 언제든지 폐기되어도 좋다고 본다는 점에서 철저하게 우상파괴적인 성격을 갖는다.

다른 한편으로 불교는 종교의 목표를 오직 사람들이 자신에게 이미 존재하는 불성을 온전히 개회한다는 데서 찾고 있다는 점에서 인본주의적 성격을 갖는다. 이에 반해 프롬은 기독교에는 권위주의적 성격과 인본주의적 성격이 혼합되어 있다고 보았다. 기독교는 한편으로는 예수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과 같은 교리를 무조건적으로 믿어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권위주의적 성격의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기독교는 하나님을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으로 보면서 하나님에 다가가는 참된 길을 다른 인간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찾고 있다는 점에서 인본주의적 성격을 갖는다.

불교에 대한 프롬의 높은 평가는 선불교에 대한 다음과 같은 언급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선(禪)은 내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가장 세련된 반(反)이데올로기적이고 이성적인 체계이며, 그것은 ‘비종교적’ 종교(nonreligious religion)를 발전시키고 있다. 선이 지식인들 사이에서 열렬한 관심을 불러 일으켜 서양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비종교적’ 종교라는 것은 선불교가 기독교나 이슬람과 같이 인격신이나 특정한 교리와 예식체계를 무조건적으로 신봉하는 종교가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철저하게 인본주의적 종교라는 것을 의미한다. 프롬은 불교야말로 철저하게 이성에 입각한 종교이며 어떠한 비합리적인 신비화나 계시나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 종교로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프롬이 불교에 접하게 된 것은 그의 나이 20세 때였다. 이 당시 프롬은 게오르크 그림(Georg Grimm)의 <부처의 가르침, 이성의 종교(Die Lehre des Buddhismus)>와 <불교학(Die Wissenschaft des Buddhismus)>을 통해서 불교를 알고 난 후 불교에 깊은 감명을 받게 된다. 프롬은 원래 정통파 유대교 집안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에는 탈무드 학자가 되려고 했었지만, 대학생이 되면서 정통적인 유대교에 대한 신앙을 상실하게 된다. 프롬이 이렇게 유대교에서 벗어나게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했지만, 그 중의 중요한 요인 중



에리히 프롬(Erich Fromm, 1900~1980)은 20세기를 대표하는 철학자이자 사회심리학자였다. 그는 <소유냐 존재냐> 등의 저서를 통해 자본주의 사회가 인간을 소외로 몰고 간다고 비판하며 인본주의적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이 시대의 임무라고 주장했다.

매일 명상한 철학자 에리히 프롬 “禪은 가장 이성적인 체계” 평가 인본주의 종교 전형 ‘불교’ 뽑아

대표 저서 <소유냐 존재냐> 통해 현대사회 ‘소유지향’ 신랄히 비판 “존재지향적 삶, 병폐 해결” 강조

하나가 불교와의 만남이었다고 할 수 있다.

불교에 대한 프롬의 관심과 애정은 단순히 이론적인 데 그치지 않았다. 프롬은 매일 아침 10시부터 11시까지 명상을 했다. 프롬은 1975년에 자신의 75세 생일을 기념하기 위한 심포지엄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었다. 당시 그는 병으로 쇠약해져 있었지만 전혀 피로한 기색을 보이지 않고 두 시간 동안 걸쳐서 발표를 했다. 사람들이 프롬에게 그 비결을 묻자 그는 자신이 그날 아침 2시간 동안 호흡과 명상을 했다고 대답했다.

소유지향적 삶과 존재지향적 삶

프롬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유냐 존재냐>는 불교사상이 프롬의 사상에 미친 깊은 영향을 쉽게 감지할 수 있는 책이다.

이 책은 제목에서도 추측할 수 있듯이 현대사회의 위기가 근본적으로 소유지향적인 삶과 사회구조에서 비롯됐다고 보면서 존재지향적인 삶과 사회구조를 대안으로

제시한 책이다. 소유지향적인 삶이란 현대인들을 규정하고 있는 삶의 방식으로서 삶의 의미를 보다 많은 물질의 소유와 쾌락의 향유에서 찾는 삶의 방식을 가리킨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사람들 상호 간의 분열과 인간과 자연의 분열 그리고 인간의 자기분열을 야기한다.

다시 말해 그것은 물질과 쾌락을 둘러싼 사람들 간의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사람들 사이의 분열을 야기하며, 자연을 한낱 지배와 정복의 대상으로서 취급함으로써 인간과 자연 사이의 분열을 야기한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방식은 인간을 물질과 쾌락에 대한 무한한 욕망에 사로잡히게 하지만 정작 이렇게 무한한 욕망은 충족되기 어렵기 때문에 인간은 항상 자신에 대한 불만에 사로잡히게 되고 자기분열에 빠지게 된다.

그런데 소유지향적인 삶의 방식에 의해 지배될수록 인간은 물질과 쾌락을 즐기는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과 쾌락에 예속되는 노예가 된다. 이렇게 물질과 쾌락의 노예가 되어 다른 사람들과 자연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 현대인들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근본적인 불만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근본적인 불만은 현대인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느끼는 공허감과 우울증 그리고 깊은 권태감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대인들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지만 자신의 존재의 밑바닥에 큰 구멍이 뚫려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는 것이다.

프롬은 이러한 공허함과 우울증 그리고

깊은 권태감을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존재지향적인 삶의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본다. 존재지향적인 삶의 방식은 자신뿐 아니라 다른 모든 존재자들의 성스러움을 경험하면서 그것들과 교감을 나누는 삶이다. 이러한 존재지향적인 삶의 방식이야말로 인간이 자신의 잠재적인 능력인 지혜와 사랑을 능동적으로 실현하면서 자신의 존재의 성장을 경험하는 가운데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삶의 방식이다.

프롬이 존재지향적인 삶의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삶이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에 입각한 삶이며, 소유지향적인 삶의 방식은 탐욕과 분노 그리고 무지라는 삼독(三毒)에 사로잡혀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간취할 수 있다.

소유지향적인 삶의 방식에 빠져 있는 인간은 물질과 쾌락에 대한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한편, 그러한 탐욕은 항상 원하는 대로 즉시 충족되는 것이 아니기에 불만과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고, 또한 물질과 쾌락이라는 덧없는 것을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면서 그것에 집착한다는 점에서 무지에 사로잡혀 있다.

프롬은 <소유냐 존재냐>에서 불교를 자주 언급하지는 않지만, 그가 이 책에서 말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이러한 사실은 프롬이 존재지향적인 삶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현해야 할 구체적인 과제들로서 거론하고 있는 것들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러한 과제들이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소유욕에서 벗어나야 한다. 사람들이 소유욕에 사로잡혀 있는 한 서로 간의 갈등은 불가피하며 자기 자신의 현 상태에 만족할 수 없다. 따라서 완전하게 ‘존재’ 하기 위해, 다시 말해 자신의 존재 자체에서 충만함과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 소유욕에서 벗어나야만 한다. 이렇게 소유욕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시기가 적에서 벗어나서 그들과 진정한 연대를 맺을 수 있으며, 이러한 상태에서만 인간은 내적으로 진정한 풍요를 느낄 수 있다. 이와 함께 저속하고 착취하는 데서가 아니라 서로 나누어 갖는 데서 기쁨을 느껴야 한다.

둘째로 모든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한다. 정당한 기계와 상품 그리고 권력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생명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는다. 자신이 모든 생명체와 하나라는 것을 자각하면서, 자연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착취하고 약탈하고 파괴한다는 목표를 포기하고 자연을 이해하고 자연과 공생하도록 힘쓴다. 셋째로 과거에 대한 회한이나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 ‘지금 여기에’ 완전히

존재한다. ‘지금 여기’에 펼쳐 있는 세계와 ‘지금 여기’에서 만나는 인간과 사물에서 경이를 느끼면서 그것들을 자신을 온전히 열고 그것들과 교감을 나눈다.

넷째로 인간의 사악함과 파괴성은 인간이 자신의 인격적인 성장을 실현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나타나는 필연적인 결과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와 모든 사람들의 완전한 성장을 실현하는 것을 삶의 궁극적 목표로 삼는다.

다섯째로 자기 이외의 어떠한 인간이나 사물도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독립적인 인간이 된다.

여섯째로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거나 또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속이지 않는 지혜로운 인간이 된다. 자기 자신과 타인들의 장점과 약점을 냉철하게 통찰할 줄 알아야 한다.

일곱째로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양을 한다. 그러나 ‘만드시 목표에 도달하겠다’는 야심은 없다. 그와 같은 야심도 탐욕과 소유의 한 형태이기 때문이다.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느냐는 운명이 맡기고 성장하고 있는 삶의 과정 속에서 행복을 느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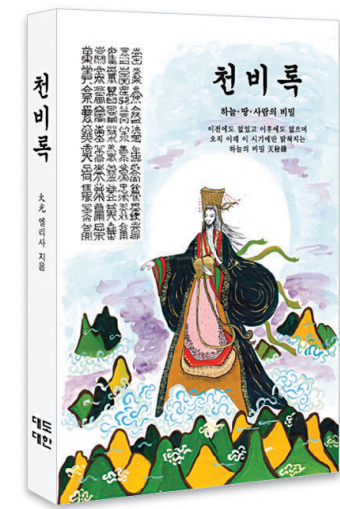
프롬과 불교의 대화

프롬은 철학자일 뿐 아니라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창조적으로 변용 계승하면서 정신분석학에 새로운 방향을 부여한 정신분석학자였고 정신치료를 직접 수행했던 정신분석의(精神分析醫)이기도 했다.

프롬은 <소유냐 존재냐>에서 현대인들과 현대사회의 병적인 성격을 분석하는 한편, 독서와 사랑, 대화, 권위, 종교 등 삶의 다양한 분야에서 소유양식과 존재양식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정신분석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분석하고 있다. 프롬의 이러한 분석은 불교의 통찰을 크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교의 가르침을 크게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인은 언젠가 프롬의 사상과 불교를 비교하면서 프롬과 불교 사이의 생산적인 대화를 매개해 볼 생각으로 있다.

소유양식보다는 존재양식을 주장하면서 사랑의 실천을 강조했던 프롬은 그 자신 진정으로 소유욕에서 벗어난 사람이었다. 독일에서 수백만 부가 팔렸던 <사랑의 기술>의 인세로 프롬은 보잘 것 없는 액수의 돈밖에 받지 못했지만 전혀 문제 삼지 않았다고 한다. 아울러 프롬은 오전 시간을 연구와 사색을 위한 신성한 시간으로 생각하면서 오전에는 돈 버는 것과 관련된 일을 일체 하지 않았다고 한다. 철학마저도 하나의 지적인 분석 작업으로 전락해 있는 오늘날의 현실에서 지행(知行)이 합일된 사람은 찾아보기 매우 힘들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에 프롬은 언행이 일치했던 극소수의 사상가들 중의 하나가 아니었나 생각한다.

천비록 (하늘·땅·사람의 비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며
오직 이때 이시기에만
밝혀지는 하늘·땅·
사람의 비밀 天秘錄!”

도서 구입 문의
063)643-7285
도서출판 대도대한 / 값 15,000원

이 책은 이 땅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 잘못 알려진 신(神)들의 역사를 밝혔으며, 신(神)들로 인해 사람들이 많은 영향을 받아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해결 방안을 밝혔으며, 바른 신앙과 도를 찾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바른 신앙과 도의 길을 밝혀 놓았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 다 신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그 누구라 해도 신과의 연결에서 벗어날 수는 없으며, 지금은 자신을 지배하는 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와, 신과의 싸움에서 패배하는 이로 나뉘는 시대임을 밝히고 있다.

교보문고 / 영풍문고 / 반디앤루니스 / 알라딘 / 예스24 / 동원서적/경인문고/홍문당서점/계몽문고/처용서림/세원출판/중앙당서점/중앙서림/홍지서림/영광도서/세기서림/탐라문고 등에서 절찬리 판매중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 힐링치유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재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교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사회봉사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영산재 보존도량 봉원사 경내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00~9:00
- 수강대상 : (1) 범패소리 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모든 분
(2)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육전범패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영산재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소장: 처명)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 /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동상 / 특허청장상 수상 CE 인증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녹색산업을 선도하는
전문운반차의 선구자! **근우테크주**




“ 상보에 귀의하옵고, 안녕하십니까?
저희 근우테크는 현재 동종업계 점유율 70% 차지하고 있는, ‘친환경 전용 농산업 기계’를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저희 근우테크의 제품 중 사찰에 꼭 필요한 전문 운반차를 안내 드립니다.
제수, 공양, 연등 등 운반과 설치에 꼭 필요한 제품으로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이용 가능한 전용 운반차! 이오니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십시오.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사찰에 최적화된 다섯가지 특징!

- 1. 안전한 공양 및 제수 운반!**
평지는 물론 경사진 길에서도 차체의 기울기 조절을 통해 200kg까지 거뜬하게 운반합니다.
- 2. 간편하고 안전한 사용법!**
자전거 운전만큼 간단합니다. 10분의 연습 후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 전자브레이크 장치로 사고위험이 없습니다.
- 3. 저렴한 유지비!**
한달 휴대전화 충전 요금이면 충분합니다.
- 4. 안전한 연등 설치 작업대!**
연등 설치와 같이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무거운 물건 등을 차량에 상·하 시 유용합니다.
- 5. 소음 걱정 끝~!**
수명이 길고 힘이 좋은 99.9% 연반 배터리를 사용, 고요한 사찰 환경에 적합합니다.

* 중남 / 교구 / 지역 / 신도회별 단체상담

친환경 녹색산업을 선도하는
근우테크주 KUNWOOD TECH CO., Ltd.
문의전화 : 010-4630-7903, (053)801-7897, 7895
대구광역시 북구 경단로 82-6(경단동 837-160번지) www.kw-tec.co.kr